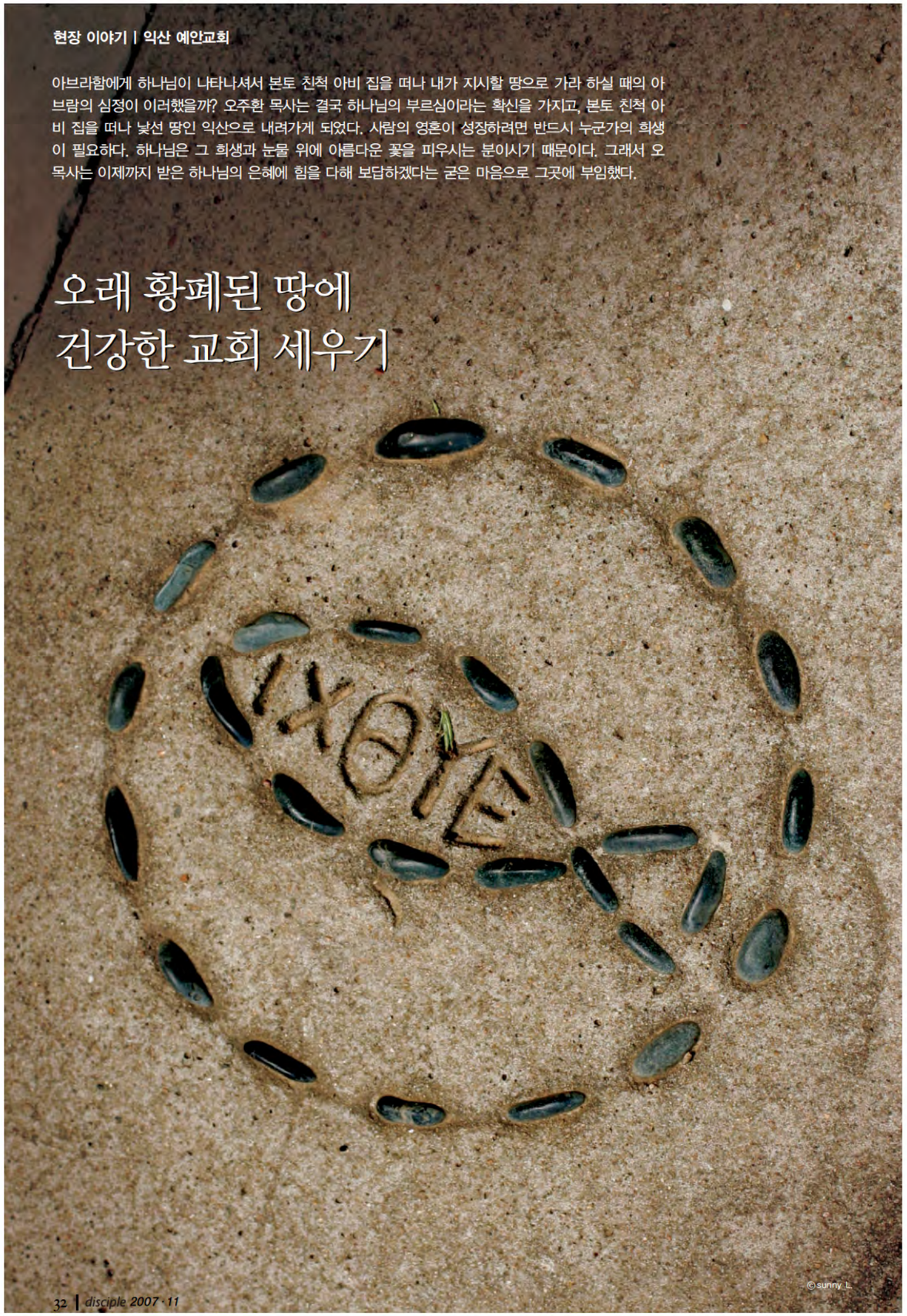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의 아브람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오주환 목사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낯선 땅인 익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희생과 눈물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 목사는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그곳에 부임했다.

오래 황폐된 땅에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오주환 목사는 숭실대 영어영문학과와 총신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사랑의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로 시무하다 현재 예안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1995년 당시 사랑의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던 오주환 목사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익산에 있는 한 교회 장로의 전화였다.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그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40년을 저는 강남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익산이라는 곳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고 그곳에 가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사와 환경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 목사는 그 제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하면 "목사님처럼 사랑의교회에서 잘 훈련 받은 분들이 지방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우리같이 쓰러져 가는 교회는 누가 살려 줍니까? 이런 교회도 살아나야 할 것 아닙니까!"라는 장로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가 없어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침에 다시 눈을 뜨면 강남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래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눈을 감으면 익산의 영혼들이 떠오르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그 교회로 부임하기로 결정했다.

좌절을 경험하다

오 목사가 큰 결심을 하고 내려갔지만 부임한 교회는 오 목사를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교회의 부채가 3억이나 되었고, 사례비도 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오 목사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부임 후 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그가 제자훈련, 설교, 심방 등으로 정신없이 목회에 매진하자 교회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장년 600명에서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교회가 처음 경험하는 부흥의 시작이었다. 오 목사가 부임한 지 3년 만에 교회의 성도는 1,300명이 되었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교회는 계속 성장했지만 교회 내부는 점점 더 곪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밀려오는 새가족들을 양육하느라 분주했던 그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새로 온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기존의 사람들에겐 관심을 주지 않아"라는 식의 비방이 계속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과반수가 되자 기존의 신자들이 기득권을 요구하며 교회는 양분화되었다.

교회 외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이라 소문이 났지만 오 목사는 교회의 아픔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기득권을 가진 성도들과 갈등이 심했던 오 목사는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익산으로 내려온 오 목사였기에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마음에 가득 찼다. "어떻게 해서 내려온 곳인데." 많이 서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잠을 못 이루어 체중이 5kg이나 빠지고 밥맛을 잃어버렸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불타던 목회에 대한 오 목사의 열정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깊은 좌절 속에 자포자기한 오 목사는 더 이상 익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오 목사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았던 여덟 가정이 그를 찾아와 서울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에 참된 맛을 보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시면 이런 척박한 익산에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 익산 땅에도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덟 가정을 통해서 오 목사는 자신의 3년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과 대화하던 중에 오 목사는 아직 하나님이 이곳 익산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기적을 꿈꾸다

여덟 가정과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지만 오 목사에게 가진 것이라곤 퇴직금 750만 원이 전부였다.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정말 풍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너무 바쁘게 분주했는데, 이제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모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쳤습니다."

기도 속에서 오 목사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목회를 경험한 터라 오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기도하면서 예안교회라 이름을 정한 오 목사는 이제 개척을 시작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한 곳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잠시 문을 닫는 예식장이었다. 무더운 7, 8, 9월 석 달 동안 임시로 빌린 예식장에서 뜨거운 여름 햇빛에 에어컨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결국 임대한 3개월은 다가오고 다른 장소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IMF가 익산에 뒤늦게 몰려온 터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교회에 돈은 없고, 가야할 예배당 하나 없는 상황에서 오 목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열치열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더운 예배당에서 땀이 범벅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람이 보기엔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예안교회를 개척하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때 오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돈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었다.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 예식장 한 귀퉁이에 있는 초라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전의 교회에서 사임해야 했던 아픔 때문에 그는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이 개척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갈 데 없는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 목사와 예안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절망을 한 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적 1 |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당시 함께 모여 부흥과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성도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가정엔 초등학교 2학년인 딸 미진이가 혈소판 기능 부족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 병은 피가 흐르면 멈추지 않는 병으로 의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고,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는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다. 아버지는 아이가 죽는다는 슬픔에 아이의 장난감과 옷가지를 모두 집 밖으로 내버렸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미진이를 심방한 오 목사는 가족들의 좌절과 눈물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은 것처럼 오 목사는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 저 어린 미진이와 자신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영광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안타까움과 또 앞으로 헤쳐 가야 할 예안교회의 상황이 병실에 누워 있는 미진이의 상황과 오버랩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을까? 오 목사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기도 후 오 목사는 병실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우리 미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진이는 일어납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는 미진이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부푼 꿈을 안고 익산으로 내려와서 좌절과 아픔을 겪은 오 목사의 절규이며,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였다.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을 통해 오 목사와 예안교회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확신을 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목사의 선포 이후 온 교회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렸다. 온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금요 철야예배 시간에 교회 문이 열리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손에 쥔 미진이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대상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 살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 주셨어요."

감격해서 눈물로 고백하는 미진이의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오 목사에게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것은 첫 번째 교회 부임 후, 오 목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벗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이다. 미진이가 일어남과 동시에 예안교회도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적 2 |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

미진이의 기적 이후 예안교회는 자리를 옮겨서 이전에 다른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장소도 얼마 안 있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배당을 이전할 돈은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오 목사는 누군가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된다.

"돈 없어서 쩔쩔매지 말고 옥한흠 목사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해. 사랑의교회에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오 목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옥한흠 목사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사로 잡혔다. 그리고 옥한흠 목사를 만날 약속을 하고 기도하면서 서울로 올라갔다.

"하나님, 옥한흠 목사님을 만나서 옥 목사님이 '오 목사, 목회 참 힘들지'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돈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도착한 오 목사는 자신이 참 힘들게 개척하고 사역하는 것을 옥한흠 목사가 잘 알고 있는 터라 분명히 "오 목사, 목회 참 힘들지"라는 말

사랑의교회에서 10년간 시무하던 오주환 목사는
고민 끝에 익산으로 내려와 열심히 목회하면서 부흥을 경험했으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이 제자훈련한 여덟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사임한 아픔과 함께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그런 그에게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 일은 그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

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옥한흠 목사를 처음 만나서 인사하자마자 옥 목사는 바로 "오 목사, 그래 개척해서 목회를 하니까 행복한가?"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탈감을 맛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오 목사에게 강하게 주시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점이다. 목회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랑의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사랑의교회에 무엇을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두 번째 깨달음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목회란 건물과 예배당을 짓는 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개척해서 건물은 없고 외적으로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훈련하고 사람을 세워 가는 것은 옥한흠 목사의 표현대로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다. 오 목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행복보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집중했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돌아온 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교회에서 비전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다.

"교회를 비워 주어야 할 시간은 다가오지만 아무런 조짐이 없어서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가 돈 가방을 들고 와서 큰 거액을 헌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다. 그리고 교회 이전을 위해 사용하라고 돈 봉투를 내밀고 돌아갔다. 그 봉투 안에는 2,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은 남편이 이발소를 하시고 본인은 남편을 도와서 이발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만 원이면 그분에게 있어서 거의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내가 그 돈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매의 언니가 1,000만 원을 또 헌금했습니다. 그 남편은 3교대로 근무하는 기능직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평생 자식들한테서 받아 모은 돈이라며 1,0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도합 4,000만 원을 그 가정에서 헌금했고, 그 헌금이 기초가 되어 온 교회가 모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일로 인해 오 목사는 한 명의 독지가가 큰 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 흘린 두 렙돈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오 목사는 미진이가 일어나는 사건과 연약한 자매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이전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익산 예안교회 제자훈련 이야기

익산 예안교회는 개척한 지 7년이 지난 현재 2,800평의 땅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인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장년 1,100여 명, 주일학교 1,000여 명이 출석하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고 있다. 사람들의 이직과 학업으로 타 지역으로 계속 인구가 이동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낸 부흥이기에 그 부흥은 참 의미있는 것이다.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오늘도 성장하는 교회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 성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훈련을 하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10년 동안 제자훈련을 인도했던 오 목사는 처음 익산에 와서 서울에서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틀에 사람을 넣고, 끌고 오다 보면 훈련만 남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제자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 방식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훈련 방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훈련 속에는 늘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이라는 틀 속에서 은혜가 말라가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훈련을 인도하지만 은혜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처음 제자훈련을 할 때 훈련생들이 숙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급급한 것을 보고, 오 목사는 훈련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숙제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대신 삶 속에서 배운 진리를 적용시키는 생활숙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자훈련을 실시했다.

둘째 | 서두르지 말고 전체 목회와 균형을 맞추라

"익산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훈련시키면 나중에 훈련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 하는 교회가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 목사의 이 고백은 익산이라는 지역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자훈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다. 농촌 지역이나 지방에서 훈련시킬 사람이 많지 않을 때, 목회자는 제자훈련 운영에 대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제자훈련을 많은 성도들이 받도록 했지만 막상 훈련 받은 사람들이 훈련 후에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없다면 훈련된 사람들이 은혜를 사용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 목사는 1년에 한 반 이상은 제자훈련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자훈련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또 익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만해 전체 목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오 목사는 남제자반을, 그리고 사모는 여제자반을 인도하고 있다. 사역반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모이면 오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체 목회와 균형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셋째 | 훈련 후에도 재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다른 비결이 있다면 바로 '제자훈련 컨벤션'을 들 수 있다. 제자훈련 컨벤션은 제자훈련 1기부터 지금까지 배출된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훈련받을 때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시간이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모두가 구역장으로 은혜충만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제자훈련 받았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컨벤션 시간을 통해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도 하고, 받은 은혜를 추억하고,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고 있다.

"올해 컨벤션에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않고 전주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컨벤션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모두 깊은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자훈련 컨벤션을 통해 그는 제자훈련 받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힘과 비전을 부여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VIP 초청 잔치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10월 28일, 저희는 VIP 초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전도 대상자들을

예안교회를 개척한 오주환 목사는 익산이라는 지역적 상황에 맞춰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자훈련 과제를 내주고,
훈련생 수급도 조절해 가며 훈련하고 있다.
또한 훈련 이후 제자훈련 때의 헌신의 마음을 되새기고자
'제자훈련 컨벤션'을 열고 있다.

교회가 아닌 익산에서 유명한 웨딩홀 문화센터를 빌려서 초청해 가장 비싼 최고급 식사를 대접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훈련 때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식사비와 초대한 사람의 식사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데도 사람들이 모두 기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제자훈련 컨벤션 때 함께 비전을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성숙한 신자들이 있기에 이런 전도 집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안교회는 VIP 초청잔치와는 별도로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대각성전도집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균형 있는 목회를 계획하라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고 말한다. 특히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훈련에 집중하지만 다른 사역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제자훈련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정착, 양육과 훈련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지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전체 목회와의 균형을 늘 고려하며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안교회는 제자훈련을 근간으로 한 균형 잡힌 목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제와 훈련의 균형 | 팀별 영성훈련

익산 예안교회는 주일 오후예배가 없다. 그 시간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는 교회 각 부서 팀별로 영성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안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팀 중에 매주 오후에 오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영성훈련팀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 각 팀에 맞는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한다. 또 산행을 하기도 하는데 함께 걸으면서 교제도 하고 또 자연 속에서 찬양도 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 가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서로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산행을 할 때도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1시간 정도의 등반코스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다양한 전도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사역의 균형 | 섬김이 프로그램

예안교회는 새가족의 정착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교회에 새로 들어오면 등록하는 비율이 90%나 된다. 그 비결은 예안교회만이 실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섬김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말한다.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오 목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 특히 바나바 사역이 새가족 정착에 좋다고 해서 실시해 보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익산이라는 지역적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과 달라서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현대인의 특성을 보면 바나바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에 맞는 정착 프로그램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섬김이 프로그램'이다. 예안교회에서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에 VIP룸이라는 따로 정해진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그때 메뉴는 잘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줄 만큼 좋은 식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들어가 인사를 하면서 등록카드를 보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섬김이들을 1:1 혹은 1:2로 붙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붙여 주는 것은 바나바와 다를 것이 없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나바와 또 이전의 정착 프로그램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특징 1 | 성경공부가 아닌 대화로 양육한다.

새가족을 양육하는 섬김이들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품이 좋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 선발하여서 매주 새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안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게 된다. 특히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는 모두 철저히 새가족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1주에 대화의 내용은 "나는 왜 예안교인이 되었는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계속 5주를 만나면서, 한 주 한 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며 새가족을 양육하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 양육하는 주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기도를 해 준다. 그렇게 5주를 만나면 섬김이와 자연스러운 교제가 형성되고 친형제지간처럼 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5주 프로그램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 새가족반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게 된다.

특징 2 |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균형을 이룬다.

대부분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반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직적인 관계라면 예안교회는 또 한 가지 수평적인 관계를 새가족반에서 의도적으로 추구한다.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만으로는 교회에 깊이 정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횡적으로 교제하고 사랑 받을 때 비로소 교회에 나오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예안교회는 섬김이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양육한 내용들을 카드에 기록해서 적게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새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섬김이들과 5주 정도 지나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 섬김이와 한 조가 되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새가족으로 와서 5주가 된 사람들과 그 섬김이들이 함께 모이는 '늘 사랑조'를 만들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부터 서로 교제를 누리게 하고 있다.

"현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절제 없는 사랑을 처음부터 쏟아내면 오히려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종교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도 거부반응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예안교회는 새가족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양육되는 것인 줄도 모르게 양육되고, 점점 교회의 교제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섬김이들이 모두 제자훈련을

오주환 목사는 교제와 훈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일오후 예배를 없애고, 팀별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새가족을 위해 예안교회만의 5주 '섬김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식 양육을 지향한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새가족의 정착율을 높이고 있다.

통해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안교회는 '섬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턱을 낮춤으로 정착률을 높이고, 또 훈련받은 섬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교제와 사역의 균형 | 샤론 레스토랑 사역

예안교회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역으로 샤론 레스토랑 사역이 있다. 오 목사는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침투하는 역동적인 문화의 변혁자임을 늘 강조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라는 것이다. 오 목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늘 지역사회의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예안교회를 건축하면서 교육관에 카페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오 목사의 기대와는 다르게 교인들만 그곳에 왔고, 지역주민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들어오기란 쉽지 않았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 목사는 전국에서 카페를 통해 지역사회를 이끄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연구했다. 그 연구 끝에 오 목사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매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주민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자 이곳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식사를 할 수 있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이곳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교회에서 문화사역의 유행처럼 번졌던 카페를 청산하고, 레스토랑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지금 샤론 레스토랑 사역을 통해 예안교회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다.

유익 1 | 지역 사회에 선한 이미지를 구축한다.

샤론 레스토랑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봉사자가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주방장과 유급 직원 4명을 두고 최고의 맛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의 분위기를 위해서 인테리어와 최고의 서비스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제공한다. 그러면서도 낮은 가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그 수익으로는 다양한 구제 사업을 한다. 또 어떤 구제 사업을 했는지를 레스토랑 벽면에 광고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사업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지역의 명소가 되어서 각종 아이들 생일잔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곳 샤론 레스토랑에서 열리고 있다. 또 이곳에서 매년 환경 미화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나, 결식아동, 소방서, 경찰관 등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샤론 레스토랑의 이미지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내게 하고, 또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지역주민들이 교회로 오기까지가 쉽지 않았는데, 친구들에게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 쉽게 옵니다.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맛있고, 저렴하고 또 모인 돈은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샤론 레스토랑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샤론 레스토랑 사역은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는 역할뿐 아니라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유익 2 | 초신자들에게도 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

샤론 레스토랑의 봉사자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다. 특히 저녁에는 남성 봉사자들이 퇴근 후에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면서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다.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한 가지 함정이 있다면 바로 성도들이 충분히 훈련되고 나서 비로소 사역의 장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또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역의 장을 마련하는 데 열심이지만 아직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은 많지 않다. 그래서 예안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된 리더들에게는 영혼을 양육하는 섬김이 과정과 구역장으로 사역하게 하고, 또 아직 훈련 받지 못한 성도들은 샤론 레스토랑 사역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역과 사명의 균형 | 지역사회 전도

예안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할 만한 날에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성탄절에는 쌀 열 가마니 정도 분량의 떡을 만들어서 시장 한가운데서 나눠주고, 전 성도가 길거리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활절에는 달걀을 예쁘게 포장해서 온 익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

"석가탄신일에 불교도들은 연등 행사를 합니다. 한복으로 모두 갈아입고 등을 들고 긴 행렬이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은 종교라는 관점을 떠나서 문화적인 렌즈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행렬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인데, 성탄절과 부활절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아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쁜 성탄과 부활절에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아름다운 문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지금은 일대일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안교회 내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바로 노방전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노방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에 예안교회 만은 어떻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예안교회의 다양한 전도 노하우 때문이다.

오 목사와 예안교회 교인들은 전도를 하면서 늘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택시 승차장에서 전도를 할 때, 택시 기사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침 일찍 택시 승차장에서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기사들에게 토스트와 차를 대접하고 전도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노방전도를 넘어서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이미지를 심어 주는 역할을 했고, 또 택시 운전사들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교회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또 어린이 전도 시에는 솜사탕을 만들어 주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붕어빵을 만들어 전도한다. 때문에 예안교회 전도팀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현재 예안교회는 월요일에 월요 전도팀, 화요일은 전도 폭발팀, 수요일은 익산 각 지역에 10개 팀으로 나누어서 간이 찻집을 통해 길거리에서 무료로 차를 나눠 주면서 전도한다. 또 전도를 위해서 교회 주보에 교인들의 간증을

세상을 향한 문화사역에 관심이 많은 오주환 목사는
샤론레스토랑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고,
지역사회 전도도 믿지 않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복음과 함께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선 오주환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앞으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회에 비전을 두고 있다.

매주 실어서 주보 자체가 곧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사용한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주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주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셔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씨를 계속해서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안교회는 익산 지역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듭되는 성장을 맛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교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더 큰 꿈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안교회, 앞으로의 비전

첫째, 모판 목회의 비전

익산 예안교회는 장년이 1,200여 명에 주일학교가 1,000여 명이 되는 교회이다. 지방에서 주일학교가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의 80% 이상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과 다른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오 목사는 그 일을 겪으면서 목회 슬럼프에 빠질 만큼 깊은 침체기를 보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예안교회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인구 이동성이 많은 지방 교회 목회자라면 오 목사와 동일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 목사도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안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모판 목회'임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다. 예안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안이라는 모판에서 잘 훈련되어 파송되는 선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서 파송하겠다는 '모판 목회의 비전'은 오 목사와 예안교회에게 개 교회를 떠나 하나님 나라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다.

둘째 , 평신도 선교사 파송의 비전

모판 목회라는 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 오 목사는 예안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또 한 가지 꿈이 있다. 그것은 낙도 같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교회에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꿈이다. 현재 예안교회는 농어촌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다. 그중에서 학동에 104년 된 교회 목사님을 예안교회에 모신 적이 있는데, 현재 20명의 성도들과 힘겹게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물질적인 후원뿐 아니라 인적 자원들도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저희 교회는 선교와 구제 사업, 장학 사업을 개척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도 좋지만 그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바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훈련된 평신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는 앞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국내 오지에 있는 열악한 교회들을 돕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고 싶습니다."

익산에 내려와서 기성 교회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오 목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교회를 사임하고 훈련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외로운 밤을 보냈던 오 목사이기에 오늘의 부흥은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여덟 가정의 사람들과 함께 황폐된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던 오 목사와 예안교회의 비전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이다.

〈고상섭 강도사〉